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

“더 많은 관심으로
활발한 활동 할 터”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제포교사회 등 불교단체는 각 나라별 이주민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2008 어울림 한마당”처럼 10여개국 이주민이 대거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은 “한국사회는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과 국제결혼가정 증가 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며 “불교계가 나서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영성 회장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 중 대부분은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온 분들이 많다. 점에서 한국 불교계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동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떠나가겠다”고 밝혔다.



불심으로 한마당~

이주 근로자들

우리는 한가족

현장속으로

2008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이주민 근로자들 오늘날은 여기가 모국
추분(秋分)을 앞둔 9월 21일, 서울 흥제동 안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온갖 다양한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한 ‘2008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열린 것이다. 몽골·스리랑카·방글라데시·네팔·캄보디아·미얀마·태국 등 10개국 근로자 6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한마당은 이주민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평상시 일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한가을 페스티벌이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입재 축사로 시작된 한마당은 배구·배드민턴·축구·줄다리기 등 국가대항 단체경기와 투호·굴렁쇠·제기차기·단체줄넘기 등 전통 놀이가 진행됐다.

한국에 온지 4년 됐다는 옷따람(미얀마·34)씨는 “미얀마에도 ‘얌따’라는 투호놀이와 비슷한 전통 놀이가 있

다. 굴렁쇠도 어릴 때 많이 해봤다. 가족 모두가 즐겁게 놀면서 잠시나마 모국에 온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즐거움을 표했다.

각설이 복장을 한 한국민속공연에 맞춰 이주민 근로자들이 소고를 배우는 시간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북과 팽과리, 소고는 물론이고, 양은냄비와 분유통까지 힘차게 두들기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방글라데시 참가자들은 ‘부처님 마음’ 전통음악에 맞춰 전통악기 연주 행진도 보였다.

언어격정? NO! 한국어면 OK!

운동장 전부를 가득 채웠던 전통놀이와 배구, 배드민턴 등의 열기도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사그라지고, 참가자들은 각국 운영진이 마련한 전통음식 시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각 나라음식 중, 네팔의 전통음식코너는 단연 인기만점이었다. 동남아 특유의 볶음밥과 커리를 튀긴 ‘서무사’, 청랑고추로 양념한 듯한 무장아찌 ‘야자르’, 천연 요구르트와 땅콩을 혼합한 전통음료까지 준비돼 식권을 든 긴 장사전을 만들어냈다.

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가을의 정취를 함께 만끽했다. 각 나라 언어가 달라도,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며 모국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특히, 이슬람권 국가인 방글라데시 참가자들은 네팔, 미얀마 등 가족단위로 참가한 사람들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온지 햇수로 7년 된 방글라데시 대표 옷따람(방글라데시·34)씨는 “방글라데시에서 불교 신자는 0.7%로 매우 극소수이다.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불교신자지만, 문

화상 여성을 외부 행사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금기시 한다. 아내를 데리고 나올수도 없고...”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땀 먹고 알 먹고

식사 후 재개된 단체경기의 열기도 잠시, 운동장 한 편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바로 병원 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와 중앙신도회 소속 불교 의료봉사단 ‘반갑다연우야’가 의료봉사를 하는 곳. 60여 명의 사람들이 치과치료와 한방치료, 의약처방을 받고 있었다.

병불련 이동숙 총무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이주 근로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며 “반갑다연우야와 함께 동서 의학과·내과·치과·정형외과 등 협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코너 바로 옆에서는 외환은행의 환전 상담과 조계종 육천암 신도회에서 준비한 바자회 등도 열렸다.

다시금 일터로, 가슴가득 불심은 영원히

이날 축구·배구·배드민턴·릴레이 계주 등 경기는 승패를 떠나 한마당 어울림 마당이였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 참가자들은 각국 언어로 서로를 응원하며 환호했다. 배구 우승국 캄보디아의 무에이(24)씨는 “평상시 운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같은 나라 사람끼리 모여 응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겁다”고 말했다.

앞서겨니 뒀서겨니, 앞치락 뒤치락하며 진행된 열띤 경기들도 모두 끝이 나고, 참가자들은 사흘서원을 부르며 아쉬움의 인사를 나눴다. 힘든 타국생활 동안 잠시나마 주어진 가을 휴식, 이주근로자의 마음에는 불심이 영글어갔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응원하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오른쪽)과 호법부 조사국장 보림 스님(왼쪽).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송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야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계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계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염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법**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법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들의 중점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면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법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 의의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1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성희빌딩 301호

☞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법 1부